

# 맞벌이 가계와 비맞벌이 가계의 가사노동 시장대체지출비 분석\*

Expenditures on Market Substitutes for Housework:  
Dual-Income and Single-Income Households

상명대학교 소비자주거학과  
부교수 양세정\*\*  
석사 김태은

Major in Consumer & Housing Studies, Sangmyung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Yang, Se-Jeong  
Mater : Kim, Tae-Eun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wife's employment status on the household expenditures of timesaving market substitutes for houseworks. Seven expenditure categories were considered such as food away from home, convenient/prepared food, housing care service, clothing care service, childcare, supplemental education, and domestic services.

The data were taken from 1999 Family Expenditure Survey by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he sample consisted of 29,963 households with 33.2% dual-income households. The average monthly expenditure for food away from home was 127,795 won for dual-income households, while 103,100 won for single-income households. The expenditure for childcare of dual-income households was over six times of single-income households'. Dual-income households spent over ten times of single-income households for domestic services. For most expenditure categories, households with wife working at white-color jobs spent more than other dual-income households.

After being other household characteristics to be constant, wife's occupation had found to be related with the household expenditures for most market substitutes. For the expenditures on both food away from home and childcare, employed-wife households with any kind of jobs were found to have higher possibility to spend and to be spent more than non-employed-wife households. The households with wife employed at white-color jobs spent more on clothing care service and domestic services than the households with the wife not working. Employed-wife households had higher possibility to spend on supplemental education, but they did not spend more on the expenditure, compared to nonemployed-wife households.

▲ 주요어(Key words) : 맞벌이 가계(dual-income household), 비맞벌이 가계(single-income household), 가사노동(housework), 시장대체지출비(expenditures on market substitutes), 취업주부(employed wife)

## I. 서 론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계속적인 증가추이를 보

이고 있다. 1963년에 37.0%에 불과하였던 것이 1970년 39.9%, 1980년 42.8%, 1990년 47.0%, 그리고 1997년에 49.5%에 이르렀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외환위기상황에 접하면서 다소 감소하였지만 1999년 이후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서 2001년 현재 48.8%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기혼여성의 취업 증가 경향이 두드러져서, 1982년에는 418만8천명의 기혼여성이 취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 1999년에는 50%이상 증가한 646만8천명에 이르렀다

\* 본 논문은 2001년도 상명대 사회과학연구소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주저자: 양세정 (E-mail :sjyang@sangmyung.ac.kr)

(통계청, 2001).

기혼여성취업의 증가추이는 출산율 감소와 가전제품 및 편의 기구의 발달에 따른 가사노동량의 감소, 교육기회의 확대에 따른 여성인적자원의 질적 향상과 자아실현의식의 고취, 여기에 사회적으로 여성취업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생겨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된다(양세정·주인숙, 1998). 이와 같은 여성의 노동공급 측면에서의 상황변화와 함께 최근 정보화 사회로의 전이는 여성노동력의 노동시장참여를 부추기며, 따라서 여성경제 활동 참가율은 당분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취업한 기혼여성의 숫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는 하나, 이들의 가정 내에서의 전통적인 주부로서의 역할은 변함없이 수행되고 있다고 평가된다(Pleck, 1985). 따라서 이들 취업주부들은 가사노동과 시장노동을 수행하여야 하는 역할과중을 경험하게 된다. 주어진 한정된 시간자원을 가지고 이중적 노동의 역할을 해야하는 취업주부는 절대적 시간의 부족을 느끼게 되며, 결과적으로 이들은 가사노동에 대한 시간부족의 해소방안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방안의 하나로 취업주부들은 자신의 가사노동에 대한 시간을 대체할 수 있는 가사노동 시장대체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많이 할 것으로 기대된다.

맞벌이여부와 가사노동을 대체하기 위한 지출비에 관한 연구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미국의 경우 맞벌이가계가 급증추세에 있던 1970년부터 시작하여 90년대 중반까지 실증연구가 다수 있었으며, 연구결과 외식비, 가사서비스, 보육비 등에서 맞벌이가계의 지출이 비맞벌이가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Nickols & Fox, 1983; Strober & Weinberg, 1980; Yang & Magrabi, 1989 등). 우리나라에서도 90년대부터 일부 연구자들이 이 주제를 다루어왔으나 일관된 연구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들 연구는 조사대상이 일부 지역에 국한됨으로써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한계를 보여왔다(구혜령, 1999; 문숙재·김혜연, 1995; 문숙재·정지영, 1997; 제미경·박명희, 1993). 양세정(1998)의 연구는 전국가계의 대표성을 가지는 도시가계연보를 사용하여 분석하기는 하였으나 주부취업에 따른 가계소비지출 전반에 대한 분석을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따라 가사노동을 대체하는 세부적인 지출비목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공하지 못하였으며, 조유현(1994)과 정순희(1993)의 연구는 미국자료를 사용하여 시장대체지출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어, 우리나라가계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참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뿐이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맞벌이와 비맞벌이가계의 가사노동에 대한 시장대체지출비를 비교하고, 맞벌이여부 및 주부의 직업유형이 해당지출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고찰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들과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가사노동 시장대체비목을 가사노동의 분류방법에 근거하여 선정하였다. 둘째, 맞벌이와 비맞벌이가계의 해당지출비목에 대한

지출규모를 비교할 뿐만 아니라, 맞벌이가계의 주부직업에 따른 집단간 비교를 함께 수행한다. 세째, 우리나라 가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료를 이용하여 관련지출비목의 산출을 위해 세부지출비목을 추출하여 분석하게 된다.

본 연구는 맞벌이가계가 필요로 하는 가사노동에 대한 시장대체지출은 무엇인지 또는 맞벌이가계에서 가사노동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으로써의 시장대체지출의 활용여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주부의 맞벌이여부에 따른 가계경제운용의 변화에 대한 예상을 가능하게 하며,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역할을 감할 수 있는 전략 모색을 도울 수 있다.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여성고용확대와 관련된 정책수립 시 가사노동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모색 및 이를 위한 지원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산업측면에서는 맞벌이가계의 증가추이와 함께 예상되는 관련 재화 및 서비스의 수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II. 선행연구고찰

여성취업이 증가하는 사회적 현상과 함께 맞벌이 여부가 가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관심이 주어져 왔다. 특히 Becker(1965)에 의한 가정생산이론이 발표되면서 주부취업에 따른 가계소비지출에 대한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어졌다. 가정생산이론은 가계의 최소자원인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론으로 가정생산이론에서 최종생산물은 구입된 시장재화의 용역과 가정에서의 시간을 결합하여 생산활동을 통하여 소비자에 의해 생산되어진다고 하였다. 이때 개인의 주어진 한정된 시간은 시장노동시간과 가사노동시간으로 나뉘게 되는데, 따라서 주부가 취업하여 시장노동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부족해진 가사노동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시장에서 구입함으로써 가사노동을 시장재화나 서비스로 대체할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이 이론에 의하면 맞벌이가계는 비맞벌이가계에 비해 가사노동의 시장대체지출을 보다 많이 하게 된다.

이러한 이론을 토대로 Strober와 Weinberg(1980)는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시간압박을 줄이는 전략으로 편리한 물품 및 서비스의 구매를 통한 「시간구매」의 개념과 남편 또는 아이들의 시간대용을 통한 「시간절약」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Nickols와 Fox(1983)의 연구에서는 Strober와 Weinberg의 개념을 사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시간 압박 해소 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여타 가구특성변수를 포함한 다중회귀분석결과 외식과 보육료 지출에서는 비취업 주부가계보다 취업주부가계가 더 많았고, 청소대행 및 세탁비지출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Bellante와 Foster(1984)의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전일제취업주부가계는 비취업주부가계에 비해 외식과 보육료 지출이 많았으며, 가사서비스, 세탁서비스, 개인서비스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Foster(1988)

의 후속연구에서도 외식비와 가공식품비 지출의 경우 취업주부 가계의 지출이 많았고, 개인서비스에 대한 지출비에는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가계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빗분석을 사용한 Yang과 Magrabi(1989)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주부가 취업에 사용하는 시간은 보육서비스지출과 정(+)적 관계가 있음을 보였고, 외식비 지출은 풀타임취업여성이 전업주부보다 더 높았다. 또한, 취업주부 사이에서 가사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취업에 보내는 시간과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Democratic Study Group(1990)과 Rubin, Rinay와 Molina(1990)의 연구는 저소득층 및 중소득의 경우 외식비, 의복서비스비, 보육료에 대해 맞벌이가계가 비맞벌이가계에 비해 많은 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표된 Huh(2002)의 연구결과는 비맞벌이가계에 비해 파트타임주부가계가 외식비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보육비에 있어서는 파트타임이건 풀타임이건 상관없이 맞벌이가계가 비맞벌이가계에 비해 지출구조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주부가 높은 직업적 지위를 가질 때 외식비 및 보육료 지출이 타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 밖에 일부 연구에서는 가계의 외식비 지출이나 편의식품에 대한 맞벌이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는데, 대부분의 연구에서 맞벌이가계는 비맞벌이가계에 비해 해당지출비목에 대한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Goebel & Hennion, 1982; Lippert & Love, 1986; Ortiz et al., 1981; Redman, 1980 등).

정순희(1993)와 조유현(1994)의 연구는 국내학회지에 발표되거나 미국가계자료를 분석한 것이었다. 정순희는 가사노동의 시장대체비목으로 외식, 의복관리, 자녀관리, 가내관리 등 네 개 비목을 설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주부의 취업상태의 영향력을 토빗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외식지출 및 자녀관리지출은 주부의 취업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가내관리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조유현의 연구에서는 정순희의 네 개 비목에 개인관리항목을 추가하였고, 주부취업여부변수 대신 주부취업시간변수를 사용하였다. 토빗분석 결과 주부취업시간이 길어질수록 외식비와 의복관리비지출은 많아지는 반면, 가내관리는 정순희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자녀관리지출은 주부취업시간과 무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연구에서는 그밖에 가족 소득, 교육수준, 연령, 어린 자녀의 존재, 주택소유여부, 가족구성형태 등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노동의 시장대체와 관련한 국내연구는 90년대 들어 활발히 진행되어왔다. 크게 시장대체재화 및 서비스의 활용정도 및 활용만족도에 관해 분석한 연구들(구혜령·이기영, 2001; 문숙재·정지영, 1991; 이미선·이정우, 1997 등)과 시장대체지출비에 관해 분석한 연구들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본 연구에 직접적인 시사점을 제공하는 후자연구들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주부의 가사노동시간과 가계의 시간절약 지출비의 관계를 다룬 문숙재와 정지영(1997)의 연구에서는 주부취업여부가 시간절약지출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결과를 제공하였다. 다중회귀분

석을 한 결과 시간절약 내구재, 소비재, 서비스 모두에서 주부가 취업을 한 경우가 그렇지 않는 경우에 비해 지출비 규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가계소득, 주부소득이 시간절약 지출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문숙재와 김혜연(1995)은 취업주부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취업주부의 직업유형에 따른 취업관련 지출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여타가구특성의 영향력을 조절한 토빗분석 결과 단순노무직 주부가계에 비해 자영업 또는 전문직주부가계는 배달음식비의 지출이 많은 반면, 시장음식의 지출은 적게 나타났으며, 자영업자주부가계는 택아방비, 가정부나 파출부비, 자녀의 예체능 교습비지출이 노무직주부가계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외식비, 편의식품비, 세탁 및 수선비 등의 지출은 주부직업 유형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밖에 남편의 직업, 주부교육수준, 막내자녀연령, 가계소득 등이 해당지출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와 가장 유사한 연구형태로 제미경과 박명희(1993)의 연구가 있었다. 이들은 시간절약서비스 지출을 분석하면서 주부취업의 영향력을 고려하였는데, 시간절약서비스로 외식, 배달음식, 세탁비, 웃수선, 파출부비용을 다루었다. 주부직업지위변수로 전문직, 비전문직, 전업주부 등 세 집단으로 나누어 다중회귀분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 웃수선과 파출부비 지출규모는 주부직업지위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나머지 서비스에 대한 지출에 대해서는 유의미 차이가 없었다. 그밖에 주부의 교육수준, 생활수준, 주택소유여부, 소득수준이 대부분의 서비스지출규모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연구인 구현정의 연구(1999)에서는 주부취업여부에 따라 지출변화가 민감한 6개의 소비지출 항목을 분석하였는데, 그 중 가사조력자 비용, 외식, 택아지출이 가사노동 시장대체 비목이었다. 비취업주부가계, 비전문직취업주부가계, 전문직취업주부가계로 나누어 분산분석을 한 결과 가사조력자지출비 및 택아비에서는 세 집단간 지출규모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식비에서는 세 집단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계청의 도시가계연보를 사용하여 분석한 관련 연구로 양세정(1998)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주부취업이 가계소비지출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다루었는데, 여타 가구특성의 영향력을 조절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외식비, 가사서비스비, 공공교통비, 이미용서비스비, 경조사 및 각종회비 등에서 취업주부가계의 지출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대략적으로 정리해보면 맞벌이가계는 외식비, 가사서비스, 택아비 등에서 비맞벌이가계와 지출규모에서의 차이를 보였으며, 주부의 직업유형에 따라서 지출규모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 밖에 가사노동 시장대체지출은 주부의 교육수준, 주부연령, 가계소득, 남편의 직업, 주택소유유무, 가족형태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가사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재화와 서비스의 지출에 대해 맞벌이가계와 비맞벌이가계의 경우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맞벌이여부가 해당지출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았다.

- 1) 맞벌이가계와 비맞벌이가계의 가사노동에 대한 시장대체지출비는 얼마나며, 집단간 차이가 있는가?
- 2) 주부직업유형에 따라 가사노동에 대한 시장대체지출비는 얼마나며, 집단간 차이가 있는가?
- 3) 여타 가구특성을 조절한 상태에서, 주부직업유형은 가사노동의 시장대체지출여부 및 지출규모에 영향을 미치는가?

#### 2. 자료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하여 도시가계조사 1999년 원자료를 사용하였다. 도시가계조사는 통계청에서 1963년이래 매년 도시 가구의 수입과 지출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전국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를 조사대상으로 한다. 수입과 지출자료는 가계부기장방식을 사용하여 조사함으로써 세부 비목별 수입과 지출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본 자료를 사용함에 따라 우리나라 도시가계의 대표성을 지닌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꾀할 수 있었으며, 또한 가계의 모든 지출비목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에서 해당지출비목만을 추출하여 사용함으로써, 특정부분에 대한 지출액을 조사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조사수치의 과장을 방지할 수 있었다는 이점이 있었다.

본 자료는 총 62,946가구에 관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나 이 중 정상적인 가계수지 파악이 가능한 근로자 가구만을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맞벌이가계와 비맞벌이가계의 경우를 비교하고자 한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남편과 부인이 모두 있는 부부 가계만을 대상으로 하되 남편이 직업이 있는 경우만 포함하였다. 노인가계의 경우 맞벌이가계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노인가계를 제외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최종분석 대상가구는 29,963가구였다.

#### 3. 변수정의 및 분석방법

##### 1) 가사노동 시장대체지출 비목 설정

가사노동을 시장재화 및 서비스로 대체할 수 있는 지출비목을 설정하기 위하여 문숙재(1998)의 가사노동 분류를 기초로 하였으며, 이에 선행연구에서 고려한 관련 지출비목들을 참고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①식생활관리, ②주생활관리, ③의생활관리, ④가족돌보기, 그리고 파출부 등과 같이 전반적인 가사노동을 대행하는 ⑤종합가사관리영역 등 다섯 영역으로 나누어 시장대체지출 비목을 설정하였다.

'식생활관리'부분의 경우 외식과 가공식품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였다. 식사와 관련한 가사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지출로 외식은 이전 연구들에서 자주 분석대상이 되어왔다(정순희, 1993; 제미경·박명희, 1993; 조유현, 1994 등). 본 연구에서는 외식비에 다양한 종류의 외부식사비와 배달음식비용을 포함하였다. 문숙재와 김혜연의 연구(1995)에서는 취업관련지출비목으로 시장 음식과 편의식품을 다루었는데, 주부직업유형에 따라 지출비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었다. 외식비가 식사준비 및 식사후처리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라면, 시장음식과 편의식품은 조리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시장대체상품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자료에서 포함하고 있는 항목인 라면, 냉동식품 등을 포함하는 가공식품비목을 분석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주생활관리'영역에서의 가사노동의 시장대체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그것은 이 영역의 가사노동은 남성형 가사노동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 효율화를 위한 가사노동의 시장대체지출에 관한 연구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것 같다. 주생활관리영역은 가사노동분류상 중요부분이고 따라서 시장서비스구매에 의해 대체가능성의 여지가 있다면 맞벌이여부와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이기영·구혜령, 1997). 따라서 주생활관리부분에 대한 시장대체지출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였다. '의생활관리'영역의 의류관련서비스비는 조유현(1994)의 연구 등에서와 같이 세탁 및 수선료를 포함하였다.

'가족돌보기'에 대한 시장대체지출로 보육료를 고려하였고, 더불어 가사노동의 유사시장대체지출라는 명목으로 '보충교육비' 비목을 포함하였다. 따라서 이후 모든 표에서 보충교육비에는 (\*)로 표시하였다. 이 비목은 문숙재와 김혜연(1995)의 연구에서 보육에 대한 시장비용으로 다른 바 있었다. 보충교육비의 경우 명확히 구분될 수는 없으나 실질적인 자녀의 보충교육부분과 보육 대체하는 비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맞벌이에 따른 보육을 위해 놀이방을 대신해서 미술학원 등에 맡기는 경우 이는 보육료가 아닌 보충교육비로 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충교육비는 일정 부분 자녀돌보기의 시장대체지출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사노동의 유사시장대체지출항목으로 함께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이 밖에 '종합가사관리'영역으로 가사사용인급료를 고려하였는데, 이는 가사노동전반을 대행해주는 대가로 지출된다.

&lt;표 1&gt; 가사노동 분류에 따른 지출비 항목의 정의

가사노동 분류		세 부 내 역
식생활관리	외식비	한국, 중국식 등 외부식사, 배달음식
	가공식품비	곡물, 육류, 달걀, 어개, 채소, 과실 등의 가공품
주생활관리	주거관련서비스비	주택수리 및 서비스, 일반가구 및 가공용기구 수선료
의생활관리	의류관련서비스비	세탁서비스, 의복 및 신발수선료
가족돌보기	보육료	놀이방비 등 보육료
	*보충교육비	입시 및 예능계학원비등.
종합가사관리	가사사용인급료	가정부, 파출부, 기타가사사용인의 급료

## 2) 분석방법 및 독립변수정의

자료분석은 SAS-PC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우선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사용하였다. 맞벌이와 비맞벌이가계의 가사노동에 대한 시장대체지출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F-검증을 수행하였으며, 맞벌이가계는 다시 주부의 직업유형에 따라 전문/사무직, 서비스직, 노무직인 경우에 대해 가사노동 시장대체지출비를 구하고, 총 네 집단에서의 값의 차이에 대해 F-검증을 하였다.

여타 가구특성변수의 영향력을 배제한 상태에서 맞벌이여부에 따른 가사노동 시장대체지출비에 대한 영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다변량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7개의 지출비목은 지출이 없는 가계가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먼저 지출액의 분포상황을 살펴보았다. <표2>에 의하면 식생활관리영역인 외식비와 가공식품지출의 경우 대부분의 가계가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나머지 5개 지출비목은 조사대상가계의 30%이상이 해당지출비목에 대해 지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종속변수에서 0이 많은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Tobit분석방법 또한 적용하는데 무리가 있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가계가 월평균 0이상의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외식비와 가공식품비 분석에 대해서는 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주생활, 식생활관리 등의 5개 지출비목에 대해서는 우선 지출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관한 영향요인을 프로빗(Probit)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이후 지출이 있는 가계만을 대상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는 2단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분석은 비맞벌이가계와 주부의 직업유형을 전문/사무직, 서비스직, 노무직으로 나누어서 총 네 개의 집단을 비교하는 형태로 수행되었다.

다중회귀분석에 사용된 가구특성변수로는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문숙재·김혜연, 1995; 정순희, 1993; 제미경·박명희, 1993; 조유현, 1994)를 참조하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원자료가 포함하고 있는 변수들을 사용하였는데, 가계소득(월), 가구원수, 주부의 연령 및 교육수준, 남편의 직업, 취학전자녀유무, 거주지

역, 주택소유상황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주부의 연령 및 교육수준은 범주형 변수로 사용하였다. 이는 종속변수와의 비선형적 관계를 포착할 수 있으며, 범주집단별 차이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거주지역이 대도시에 가까울수록 가사노동의 시장대체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거주지역 변수를 모델에 포함하였으나, 원자료상 서울지역 및 기타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어 부득이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 독립변수간의 높은 상관관계에 의한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 변수에 대해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lt;표 2&gt; 지출비목별 가사노동에 대한 월평균시장 대체지출비 분포

지출분위별 가사노동 분류	평균값 (s.d.)	20%	40%	60%	80%	0값수 (%)
식생활 관리	외식비	111,312(123633)	40,000	72,200	107,700	163,500
	가공식품비	27,782 (24632)	11,000	19,050	28,030	41,010
주생활 관리	주거관련 서비스비	16,197(202724)	0	0	1,350	7,320
의생활 관리	의류관련 서비스비	3,038 (12952)	0	0	0	4,000
가족돌 보기	보육료	6,810 (43132)	0	0	0	28,873(96.4)
	*보충 교육비	57,888(113755)	0	0	0	110,000
종합가 사관리	가사사용인 급료	1,518 (33930)	0	0	0	29,796(99.5)

## IV. 분석결과

## 1. 분석대상가구의 사회인구학적 특징

분석대상가구의 사회인구학적 특징은 <표3>과 같다. 분석대상가구 중 맞벌이가계는 9,956가계로 33.2%를 차지하며, 비맞벌이가계는 20,007가계로 66.8%였다. 맞벌이가계의 월평균소득은 2,748,322원으로 비맞벌이가계의 2,140,595원보다 607,727원이 더 많았으며, 맞벌이가계 주부의 75%가량이 3, 40대였다. 맞벌이가계의 주부는 고졸이상의 학력이 67%를 차지했고, 비맞벌이가계의 주부는 73%정도가 고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졸이상의 비중은 맞벌이가계가 다소 높았다. 맞벌이가계 주부의 직업유형은 노무직이 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전문/사무직, 서비스직의 순서였다. 분석대상가구의 남편의 직업은 노무직이 가장 많아서 맞벌이가계는 55%, 비맞벌이가계는 45%였고, 맞벌이가계 남편의 39%가 전문/사무직에 종사하고, 비맞벌이가계는 50% 수준이었다. 맞벌이가계 중 미취학자녀가 있는 가계는 12%였고, 비맞벌이가계는 25%로 비맞벌이가계가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였다. 맞벌이가계 중 20%, 비맞벌이가계는 18%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며, 맞벌이가계의 63%, 비맞벌이가계의 61%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t;표 3&gt; 분석대상가계의 사회인구학적 특징

단위: 가구수(%)

사회인구학적 특징	전체	맞벌이가계	비맞벌이가계
총 대상가구 (%)	29,963(100.0)	9,956 (33.2)	20,007 (66.8)
월 평균소득 (원)	2,340,850	2,748,322	2,140,595
가구원수	평균(인)	3.75	3.77
주부연령	평균(세)	37.7	38.5
	30세 미만	6,017 (20.1)	1,443 (14.5)
	30~39세	12,595 (42.0)	4,339 (43.6)
	40~49세	7,610 (25.4)	3,117 (31.3)
	50세 이상	3,741 (12.5)	1,057 (10.6)
주부교육 수준	초졸	3,404 (11.3)	1,044 (10.5)
	중졸	5,392 (18.0)	2,282 (22.9)
	고졸	15,307 (51.1)	4,418 (44.4)
	대학	5,860 (19.6)	2,212 (22.2)
모의 직업	전문/사무직	2,834 (9.4)	0 (0.0)
	서비스직	2,669 (8.9)	0 (0.0)
	노무직	4,453 (14.8)	0 (0.0)
	비취업주부	20,007 (66.8)	0 (0.0)
부의 직업	전문/사무직	13,842 (46.2)	3,897 (39.2)
	서비스직	1,578 (5.3)	601 (6.0)
	노무직	14,543 (48.5)	5,458 (54.8)
미취학 자녀유무	유	6,285 (21.0)	1,218 (12.2)
	무	23,678 (79.0)	8,738 (87.8)
거주지역	서울	5,648 (18.8)	2,024 (20.3)
	기타지역	24,315 (81.2)	7,932 (79.7)
주택소유 여부	소유	18,534 (61.9)	6,293 (63.2)
	무소유	11,429 (38.1)	3,663 (36.8)
			7,766 (38.8)

## 2. 가사노동에 대한 시장대체지출비 비교

<표4>는 맞벌이와 비맞벌이가계의 가사노동에 대한 월평균 시장대체지출비를 제시하였다.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라 외식비, 보육료, 보충교육비, 가사사용인급료 지출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맞벌이가계는 외식비로 월평균 127,795 원을 지출한 반면, 비맞벌이가계는 103,100원을 지출해 맞벌이가계가 외식비에 24,695원을 더 많이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료는 맞벌이가계에서 월평균 15,699원을 지출한 반면, 비맞벌이가계에서는 2,394원을 지출해 6배가 넘는 지출액의 차이를 보였다. 보충교육비의 경우 맞벌이가계는 월평균 65,191원을 지출하여 비맞벌이가계의 54,255원보다 다소 많았다. 가사사용인급료로 맞벌이가계에서는 월평균 3,805원을 지출한 반면, 비맞벌이가계에서는 379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 맞벌이가계에서 월등히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공식품, 주거관련서비스, 의류관련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두 집단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5>는 주부의 직업을 유형별로 나누어 가사노동에 대한 월평균시장대체지출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분석결과 주부의 직업유형에 따라 모든 지출비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부의 직업유형과 상관없이 하나의 맞벌이집단으로 묶어 비맞벌이집단과 비교한 <표4>의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다. 앞의 표에서는 외식, 보육료, 보충교육비, 가사사용인급료에 대한 지출에서만 맞벌이와

비맞벌이가계간에 지출규모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었다. 이는 주부의 직업유형에 따라 취업주부가계가 비취업주부가계에 비해 시장대체지출이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여진다. 예를 들어 가사사용인급료나 의류관련서비스비에 대한 지출규모는 주부가 서비스직 또는 노무직에 종사하는 가계에 비해 비맞벌이가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가 전문/사무직에 종사하는 가계의 경우 외식에 월평균 164,741원을 지출함으로써 서비스직 117,154원, 노무직 110,377원에 비해 월등히 높은 지출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공식품비 역시 전문/사무직주부가계가 월평균 29,663원으로 가장 많은 지출을 하였으며, 서비스직 28,409원, 노무직이 26,736원의 순서였다. 주거관련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주부가 노무직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가 여타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고, 세탁료, 회복수선료 등을 포함하는 의류관련서비스비는 전문/사무직이 월평균 4,822원, 서비스직이 2,843원, 노무직은 2,338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가족돌보기와 관련한 시장대체지출의 경우 주부가 전문/사무직인 경우 지출규모가 월등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료의 경우 주부가 전문/사무직에 종사하는 가계에서 월평균 37,434원을 지출하여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서비스직은 9,286원을, 노무직은 5,648원이었다. 가사사용인급료는 전문/사무직 직종을 가진 취업주부가계의 경우 여타집단에 비해 월등히 높은 지출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들 집단은 월평균 12,86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충교육비지출의 경우 주부가 전문/사무직이거나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가계의 경우 각기 월평균 73,149원과 69,387원으로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었고, 주부가 노무직이거나 취업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5만원대의 낮은 지출규모를 보였다. 대부분의 지출비목에서 전문/사무직가계의 지출규모가 가장 컼고, 다음으로 서비스직, 노무직가계의 순서였다. 이러한 결과는 주부직업이 전문직일수록 시간에 대한 가격이 올라감으로써 시장서비스 지출이 많아진다는 구현정(1999)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lt;표 4&gt; 맞벌이여부에 따른 가사노동에 대한

월평균시장대체지출비 비교

가사노동분류 (가구수)	전체 (29,963)	맞벌이① (9,956)	비맞벌이② (20,007)	①-②	F-test
식생활관리 가공식품	외식 가공식품	111,312 27,782	127,795 23,038	103,100 27,654	24,695 384
주생활관리 주거관련서비스비	주거관련서비스비	16,197	13,663	14,967	3,696
의생활관리 의류관련서비스비	의류관련서비스비	3,038	3,192	2,961	231
가족돌보기 *보충교육비	보육료 *보충교육비	6,810 57,888	15,699 63,191	2,394 54,255	13,305 10,936
종합가사관리 가사사용인급료	가사사용인급료	1,518	3,805	379	3,426
					67.99**

\* p&lt;0.05, \*\* p&lt;0.01 수준에서 유의함.

<표 5> 주부의 직업유형에 따른 가사노동에 대한 월평균시장대체지출비 비교 (n=29,963)

가사노동분류	맞벌이			비맞벌이	F-test
	전문/사무직	서비스직	노무직		
식생활 관리	외식	164,741	117,154	110,377	103,100
	Duncan-test	A	B	C	D
	가공식품	29,663	28,409	26,736	27,654
	Duncan-test	A	B	C	BC
주생활 관리	주거관련서비스비	14,336	10,858	25,919	14,967
	Duncan-test	A	A	B	A
	의류관련서비스비	4,822	2,843	2,338	2,961
	Duncan-test	A	BC	C	B
가족 돌보기	보육료	37,434	9,286	5,648	2,394
	Duncan-test	A	B	C	D
	*보충교육비	73,149	69,387	57,142	54,331
	Duncan-test	A	A	B	B
종합가사관리	가사사용인급료	12,860	198	188	379
	Duncan-test	A	B	B	B

\* p<0.05, \*\* p<0.01 수준에서 유의함.

<표6>은 취업주부의 직업유형에 따른 가사노동에 대한 시장대체지출 여부를 살펴본 것이다. 가사노동에 대한 월평균시장대체지출비의 집단간 차이는 시장대체지출을 사용하느냐 안하느냐의 여부와, 사용하되 얼마나 지출하느냐의 효과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사노동에 대한 시장대체지출을 하지 않는 것은 선택에 의해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론 가계의 특성에 따라 시장대체지출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도 있다. 본 표에 따르면 가공식품을 제외한 모든 지출비목에서 주부의 직업유형에 따라 시장대체지출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가 전문/사무직에 종사하는 가계의 경우 대부분의 시장대체지출비목에 대해 지출하고 있었으며, 특히 보육료의 경우 이들 가계의 14.4%가, 가사사용인급료 또한 2.5%의 사용율을 보임으로써 타집단과 많은 차이를 보였다.

<표 6> 취업주부의 직업별 가사노동시장 대체지출이 있는 가계비율 (단위: %)

가사노동분류	맞벌이			비맞벌이	Chi-square 검증
	전문/사무직	서비스직	노무직		
식생활 관리	외식	98.8	97.2	97.6	96.1
	가공식품	99.2	99.1	99.3	99.2
주생활 관리	주거관련서비스비	55.8	32.7	30.7	42.9
	의류관련서비스비	37.0	28.2	25.0	29.5
가족돌보기	보육료	14.4	4.6	3.9	1.9
	*보충교육비	40.9	44.8	41.4	36.5
종합가사관리	가사사용인급료	2.5	0.4	0.9	0.4

\* p<0.05, \*\* p<0.01 수준에서 유의함.

<표7>은 각 지출비목별로 지출이 있는 가계만을 대상으로 주부의 직업유형별 가사노동에 대한 월평균시장대체지출비를 나타낸 것이다. 전 지출비목에 대해 주부직업유형에 따라 지출

비규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비의 경우 주부가 전문/사무직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가계의 경우 월평균 166,738원을 지출하여 가장 큰 수치를 보였으며, 이에 반해 비맞벌이가계는 107,314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공식품은 주부가 노무직에 종사하는 가계가 비맞벌이가계에 비해 지출규모가 작았다.

의류관련서비스지출이 있는 가구 중 주부가 전문/사무직에 종사하는 가계의 경우 이 비목에 월평균 13,049원을 지출함으로써 4개 집단 중 가장 많았고, 주부가 서비스직이나 노무직에 종사하는 가계의 경우는 비맞벌이가계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보육료의 경우 주부가 취업을 하고 있는 가계에서 지출이 많았는데, 특히 주부가 전문/사무직이거나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평균 20만원 이상의 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충교육비의 경우 <표6>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주부가 전문/사무직가계의 경우 이 비목에 지출하는 가계의 비율이 40.9%로 타집단에 비해 많은 편이 아니었으나, <표7>에서 이 지출비목에 지출을 하고 있는 가계만을 대상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은 지출을 하고 있었다. 월평균 178,872원을 지출하였으며, 서비스직인 경우가 154,814원으로 다음의 순이었다. 주부가 노무직에 종사하는 가계는 비맞벌이가계에 비해 보충교육비 지출이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과출부나 가정부사용에 따른 가사사용인을 사용하는 가계 중 주부가 전문/사무직인 가계의 월평균지출규모가 타집단에 비해 월등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집단은 월평균 514,211원을 지출함으로써 10만원 남짓의 지출을 하는 여타집단과 큰 격차를 보였다.

<표 7> 주부의 직업유형에 따른 가사노동에 대한

월평균시장대체지출비 비교:

각 지출비목에 대해 지출비있는 가계 대상

가사노동분류(대상가구수)	맞벌이			비맞벌이	F-test
	전문/사무직	서비스직	노무직		
식생활 관리	외식(28,964)	166,738	120,510	113,080	107,314
	Duncan-test	A	B	C	D
	가공식품(29,710)	29,905	28,676	26,922	27,901
	Duncan-test	A	B	C	BC
주생활 관리	주거관련서비스비(12,402)	25,685	33,189	84,578	34,939
	Duncan-test	A	A	B	A
의생활 관리	의류관련서비스비(8,818)	13,049	10,073	9,353	10,052
	Duncan-test	A	B	B	B
가족돌보기	보육료(1,085)	259,208	200,056	143,673	126,897
	Duncan-test	A	B	C	C
	*보충교육비(11,498)	178,872	154,814	138,060	148,942
	Duncan-test	A	B	C	B
종합가사관리	가사사용인급료(162)	514,211	48,455	120,500	103,937
Duncan-test	A	B	B	B	

\* p<0.05, \*\* p<0.01 수준에서 유의함.

### 3. 맞벌이여부에 따른 가사노동 시장대체지출비에 대한 영향

<표8>과 <표9>는 여타가구특성이 조절된 상태에서 맞벌이여부가 가사노동에 대한 시장대체비목의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연구결과 외식비, 보육료 지출에서 맞벌이가 계의 지출이 비맞벌이가계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타지출비목에 있어서는 주부직업에 따라 지출비에 미치는 영향력의 형태가 다소 차이를 보였다.

#### 1) 식생활관리: 외식과 가공식품

식생활관리시간을 줄일 수 있는 대표적인 방안으로 논의되는 외식의 경우 주부의 직업이 어떤 유형이건 상관없이 맞벌이가계가 비맞벌이가계에 비해 지출이 많았다. 여타 가구특성이 조절된 상태에서 주부직업이 전문/사무직인 가계의 경우 비맞벌이가계에 비해 월평균 27,978원을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부가 서비스직이나 노무직에 종사하는 경우도 비맞벌이가계에 비해 1만원이상의 추가지출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식생활관리에 관한 가사노동의 양을 줄일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식사준비시 가공식품을 활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분석결과 이 비목에 대한 지출은 예상과 달리 주부가 전문/사무직에 종사하는 가계가 비맞벌이가계에 비해 도리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부가 서비스직과 노무직에 종사하는 가계는 비맞벌이가계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외식비는 식사 후 처리까지 식사관련 전과정에 소요되는 가사노동의 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임에 반해, 가공식품의 사용은 식사준비시간만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맞벌이가계가 식사를 간소하게 차리거나 외식을 선호하는 방식으로 가정 내에서의 식생활규모 자체를 줄이는 경우, 식사준비의 도구로써의 가공식품의 사용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주부가 전문직이거나 자영업에 종사하는 가계가 노무직에 종사하는 가계에 비해 편의식품 지출이 적었던 문숙재와 김혜연(1995)의 연구결과와 비슷한 맥락으로 보여진다.

외식비와 가공식품에 대한 지출비규모는 여타 가구특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이 높아지거나 가구원수가 증가함에 따라 외식비는 증가하였고, 주부연령이 50세 이상인 가계에서, 그리고 주부학력이 높아짐에 따라 외식비 지출이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남편의 직업이 전문/사무직이거나 서비스직인 경우 노무직인 가계에 비해 외식비지출이 많았다. 취학전 자녀가 있는 경우 외식을 덜하는 경향을 보이고,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구가 여타 지역거주가계에 비해 외식비에 더 많이 지출하고 있었으며, 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그렇지 않는 가구에 비해 외식비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과 가구원수가 증가함에 따라 가공식품비는 증가하며, 주부연령이 50세 이상인 가계에서 30대미만 가계에 비해 가공식품의 지출비가 적었고, 주부의 학력이 높아질수록 가공식품

에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이 서비스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타집단에 비해 가공식품비에 대한 지출이 적었고, 취학전자녀가 있는 경우에 그렇지 않은 가계에 비해 가공식품비 지출규모가 적었다. 또한, 서울에 거주하고 주택을 소유한 가계가 여타집단에 비해 가공식품에 대한 지출규모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8> 외식비와 가공식품 지출비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다중회귀분석

독립변수	식생활관리	
	외식	가공식품
주부직업: 전문/사무직	27978**	-1791**
서비스직	12979**	-175
노무직	10221**	-706
가계소득(만원)	0.0107**	0.0011**
가구원 수	8220**	3193**
주부연령: 30~39세	-21827**	364
40~49세	893	-379
50세이상	8216**	-7404**
주부학력: 중 졸	4557	2544**
고 졸	12072**	5894**
대 졸	32662**	7636**
남편직업: 전문/사무직	19643**	110
서비스직	22583**	-1996**
취학전 자녀유무: 있 음	-11396**	-2896**
거주지역: 서 울	37064**	1099**
주택유무: 소 유	8580**	1749**
상수항	25393**	8784**
Adj R <sup>2</sup>	0.1093**	0.0635**

\* p<0.05 , \*\* p<0.01 수준에서 유의함.

\*\* 비교변수: 주부직업(비맞벌이); 주부연령(30세미만); 주부학력(초졸); 남편직업(노무직); 취학전자녀유무(무); 거주지역(기타 지역); 주택유무(무소유)

#### 2) 주생활관리: 주거관련서비스

주거관련서비스에 대한 지출여부를 살펴본 Probit분석결과를 보면, 예상과는 반대로 맞벌이상태가 비맞벌이상태에 대해 주거관련서비스를 지출했을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출비목에 지출을 하고 있는 가계를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주부가 노무직에 종사하는 가계가 비맞벌이가계에 비해 지출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부가 전문/사무직이거나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가계의 경우에는 비맞벌이가계와 지출규모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주거관련서비스가 맞벌이가계의 가사노동의 시간대체지출로 사용되지 않음을 의미하며, 주생활관리 영역이 남성형 가사노동의 성향이 강함에 따라 이에 따른 시간절약시장대체지출이 주부의 취업여부와 상관이 없을 것으로 평가된다.

주거관련서비스에 대한 지출여부와 지출규모는 여타가구특성이 동일하다고 보았을 때 가계소득과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며, 이 밖에 가구원수, 주부연령, 주부학력, 남편직업, 취학전 자녀유무 등 추정모형에서 고려된 가구특성 변수 전부와 어떤 형

&lt;표 9&gt; 가사노동 시장대체지출여부 및 지출비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Probit분석과 다중회귀분석

독립변수	종속변수	주생활관리		의생활관리		가족돌보기			종합가사관리	
		주거관련서비스	의류관련서비스			보육료	*보충교육비		가사사용인급료	
주부직업: 전문/사무직 서비스직 노무직	-0.061* -0.268** -0.207**	-11364 -7284 49228**	0.004 -0.023 -0.065**	1871* -141 -891	1.122** 0.822** 0.796**	114721** 81463** 17487	0.122** 0.090** 0.096**	7035 6576 801	0.455** 0.197 -0.125	228076** 117772 33779
가계소득(만원)	2.192**	0.008**	2.806**	0.0005**	1.698**	0.004*	2.968**	0.006**	2.282**	-0.004
가구원 수	-0.076**	4426	0.006	-92	0.106**	-11619*	0.352**	7427**	0.096**	6052
주부연령: 30~39세 40~49세 50세이상	0.228** 0.131** -0.202**	5528 2147 97199**	0.017 0.070* -0.046	-414 1217 52	-0.032 -0.504** -0.936**	22090** -6308 -14723	1.047** 0.708** -0.285**	-10052 35019** -9181	-0.129 -0.164 0.406**	154179** 116672 524380**
주부학력: 중졸 고졸 대졸	-0.028 0.451** 0.881**	54190** 40019** 15529	0.062 0.088** 0.155**	-2128* -1863 -757	-0.510** -0.026 0.202	-34871 -7389 30902	0.341** 0.732** 0.718**	5524 25905** 59158**	0.380* 0.190 0.664**	129441 112107 249630*
남편직업: 전문/사무직 서비스직	0.171** -0.121**	12796 59538**	0.315** 0.195**	588 12	0.060 0.008	-760 -26721	0.203** -0.119**	24860** -25%	0.225** 0.014	-15227 -68256
취학전 자녀유무: 있음	-0.088**	-1761	-0.038	-684	1.012**	3509	-0.560**	-43760**	0.207**	168525**
거주지역: 서울	-0.531**	35760**	-0.009	65	-0.269**	21851*	-0.036	62405**	0.048	212763**
주택유무: 소유	0.807**	13700	0.061**	679	-0.154**	-239	0.227**	28084**	0.138**	-14776
상수항	-0.916**	-69867**	-0.905**	9950**	-2.852**	142335**	-3.079**	33690**	-3.724**	-323038**
Log Likelihood/Adj-R <sup>2</sup>	-17306.5258	0.0162**	-17754.8161	0.0075**	-3419.6876	0.2479**	-15142.0570	0.1380**	-863.6979	0.7395**

\* p&lt;0.05, \*\* p&lt;0.01 수준에서 유의함.

\*\* 비교변수: 주부직업(비맞벌이); 주부연령(30세미만); 주부학력(초졸); 남편직업(노무직); 취학전자녀유무(무); 거주지역(기타지역); 주택유무(무소유)

태로운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를 소유하고 있는 가계의 경우 그렇지 않는 가계에 비해 주거관련서비스에 대해 지출할 가능성이 높았지만, 이 비목에 지출을 하고 있는 가계를 대상으로 한 지출규모분석 결과는 자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고 해서 주거관련서비스에 대한 지출규모가 커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 3) 의생활관리: 의류관련서비스

의생활관리와 관련된 시장대체지출로 세탁서비스 및 의류수선료등의 의류관련서비스에 관한 지출을 다룬 결과, 여타가구특성을 조절하였을 때 주부가 노무직에 종사하는 가계는 비맞벌이가계에 비해 의류관련서비스 지출을 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밖에 주부의 여타직업유형은 의류관련서비스 지출여부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였다. 반면 의류관련서비스 지출이 있는 가계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 주부가 전문/사무직에 종사하고 있는 가계의 경우 비맞벌이가계에 비해 지출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가 전문/사무직에 종사하는 경우 남편 또한 유사업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직업의 특성상 의복관리의 필요성이 서비스나 노무직가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으며, 이러한 수요를 시장대체지출을 통해 해소할 여지가 보다 많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가계소득이 많아짐에 따라 의류관련서비스 수요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밖에 주부연령, 주부학력도 의류관련서비스의 지출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남편의 직업이 전문/사무직이거나 서비스직인 경우 의류관련서비스에 대한 지출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가족 돌보기: 보육료와 보충교육비

취학자녀유무, 가계소득 등 여타 가구특성을 조절하였을 때 보육료에 대한 지출여부 및 지출규모는 비맞벌이와 맞벌이가계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맞벌이가계의 지출이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주부의 직업이 전문/사무직인 경우 보육료 지출이 가장 많았다. 보육료지출이 있는 가계만으로 분석한 회귀분석결과에 의하면 주부가 전문/사무직 가계인 경우 비맞벌이가계에 비해 114,721원을, 서비스직 가계인 경우 81,463원을 더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Yang과 Magrabi(1989)

가 지적하였듯이 야간시간이나 주말로 미루는 방식의 시간조절이 가능한 여타 가사노동과는 달리, 자녀보육은 주부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 시간동안 반드시 다른 방식의 대체가 되어야 하는 가사노동의 유형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시장대체지출의 발생여지가 많은 지출비목으로 평가되어진다. 여타 가사노동 시장대체지출비목과 마찬가지로 보육료지출은 가계소득과 정적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 밖에 가구원수, 거주지역, 주택유무, 주부학력 등이 보육료지출행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robit 분석결과에 의하면 주부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보육료 지출가능성은 적어지며, 주부가 30대인 가계의 경우 30대미만가계에 비해 보육비지출규모가 커졌다. 서울거주가계는 기타지역거주 가계에 비해 보육료 지출가능성은 적었으나, 이 비목에 지출이 있는 가계만을 비교하였을 때 기타지역거주 가계에 비해 지출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돌보기와 관련한 유사시장대체지출로 보충교육비지출을 분석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가계소득, 가구원수 등 여타가구 특성을 조절하였을 때 취업주부가계인 경우 직업유형과 상관없이 비맞벌이가계에 비해 보충교육비를 지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맞벌이가계가 자녀보육의 수단으로 학원 등에서 보충교육을 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보충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가계만을 대상으로 하여 지출비규모에 관해 회귀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맞벌이와 비맞벌이가계간에는 유의미한 격차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 밖에 보충교육비 지출 여부와 지출규모에 관한 영향요인으로는 가계소득, 가구원수, 주부학력이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부연령, 남편의 직업도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거주지역이 서울인 경우 타지역에 비해 보충교육비 지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타지역 거주 가계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보충교육비에 대한 지출규모에 있어서는 서울지역 거주 가계가 타지역거주 가계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5) 종합가사관리: 가사사용인급료

가사사용인급료의 경우 비맞벌이에 비해 전문/사무직 주부의 가계가 가사사용인을 많이 이용하고, 지출규모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자료를 사용한 연구결과(정순희, 1993; 조유현, 1994)와 상반되는 것으로 미국의 경우는 맞벌이가계의 주부가 가정 내 머무는 시간이 적음으로 인해 가사사용인의 관리가 어려우며, 따라서 도리어 비맞벌이가계에 비해 이 부분에 대한 지출이 적다고 보았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회적 여건상 가사사용인 고용 및 사용이 보다 용이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가사노동대체의 필요성이 그대로 가계지출로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전문/사무직 주부 가계와는 달리, 여타직종에 종사하는 취업주부 가계는 가사사용인급료에 있어서 비맞벌이가계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서비스직이나 노무직에 종사하는 주부의 경우 파트타임으로 일을 한다던지 하는 식으로 가사노동을 위해 노동시간 조

절이 타 직업 주부에 비해 유리하기 때문인 것 같다.

가계소득이 많아짐에 따라 가사사용인사용을 많이 하며, 가구원수가 많아짐에 따라 가사노동의 양이 늘어나며 따라서 가사사용인 사용이 잦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연령이 50세이상인 경우 30세미만 주부 가계에 비해서, 그리고 주부학력이 높을수록 가사사용인급료에 지출규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취학자녀를 보유하고 있는 가계가 그렇지 않는 가계에 비해 가사사용인급료에 많이 지출함을 보였다.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가계가 가사사용인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가사사용인급료 지출이 있는 가계 중에서 분석했을 때 타지역거주가계에 비해 서울지역거주가계가 이 비목에 대한 지출이 20만원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V.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1999년 통계청에 의해 수행된 도시가계조사의 원자료를 사용하여 맞벌이와 비맞벌이가계의 가사노동에 대한 시장대체지출에 관해 비교 분석하였다. 가사노동의 맞벌이가계로는 식생활관리영역의 외식비 및 가공식품비, 주생활관리영역의 주거관련 서비스비, 의생활관리영역의 의류관련 서비스비, 가족돌보기 영역의 보육료와 보충교육비, 그리고 종합가사관리영역의 가사사용인급료 등 총 7개 지출항목을 설정하였으며, 맞벌이 가계는 주부의 직업별로 나누어서 전문/사무직, 서비스직, 노무직 맞벌이가계와 비맞벌이가계를 비교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맞벌이와 비맞벌이가계의 가사노동에 대한 시장대체지출비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외식, 보육료, 보충교육비, 가사사용인급료 지출에서 맞벌이가계가 비맞벌이가계에 비해 지출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의 직업유형별로 세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모든 지출비목에서 집단간 지출규모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의 직업이 전문/사무직에 종사하는 가계의 경우 분석된 지출비목 대부분에서 가장 많은 지출규모를 보였고 특히 외식비, 보육료, 가사사용인급료 지출에서 타집단에 비해 월등히 많은 지출을 보였다.

둘째, 여타 가구특성의 가사노동 시장대체지출비에 대한 영향력을 배제한 상태에서 맞벌이의 독립적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다변량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맞벌이가계는 주부의 직종이 어떤 것이건 상관없이 외식과 보육료에 대한 지출 여부 및 지출비규모에 대해 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사무직의 직업을 가진 주부 가계의 경우 가사사용인을 이용하는 경우가 비취업주부가계에 비해 많았으며, 지출규모 또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충교육비는 맞벌이가계인 경우 지출 가능성이 높았으나, 지출규모에 있어서는 비맞벌이가구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셋째, 여타 가구특성의 가사노동시장대체지출비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면 가계소득은 대부분의 시장대체지출비목에서 지

출여부 및 지출규모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밖에 가구원수, 주부연령, 주부학력, 남편의 직업, 취학자녀유무, 거주지역, 주택유무 등이 지출비목의 지출여부 및 지출규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본 몇 가지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분석된 가사노동 시장대체지출비목 대부분의 지출여부 및 지출규모에 대해 맞벌이상태가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와 유사한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던 제미경과 박명희의 연구(1993)가 옷수선과 파출부비용만이 맞벌이와 비맞벌이가계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것과 차이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의 차이는 맞벌이가계가 증가하고 충산층여성의 맞벌이경향이 확대됨에 따라 가사노동의 시장대체가 점차 보편화되어지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최근 자료를 사용한 연구일수록 맞벌이와 비맞벌이가계의 가사노동시장대체지출에서의 격차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맞벌이가계에서 가사노동에 대한 시장대체 재화나 서비스 사용이 활발해짐은 그 만큼 가사노동으로 인한 과중한 부담을 덜 수 있음을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가사노동의 시장대체는 그만큼 가계입장에서 볼 때 가계지출의 증대를 의미하므로 이는 주부취업에 따른 취업비용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연구결과에 따르면 취업주부의 직업유형에 따라 가사노동의 시장대체지출여부 및 지출규모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있었다. 이는 직업유형에 따라 업무시간조절 내지는 업무의 과중정도의 차이가 가사노동운용형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다른 측면으로는 시장대체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를 위해서는 별도의 지출이 필요하며, 따라서 가사노동의 시장대체지출을 함에 있어 가계가 보유한 구매력 수준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본 연구가 가계소득을 조절한 상태에서 주부직업유형에 따른 가사노동 시장대체지출비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하기는 하였으나, 다른 주요 자원변수라 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고려가 분석모델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주부직업유형에 따라 가계자산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가 시장대체구매의 차이를 초래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보다 정교한 관련 연구를 위해서는 가계자산에 관한 자료가 요망된다 하겠다.

셋째, 주부의 직업유형이 가사노동에 대한 시장대체지출비에 미치는 영향력은 본 연구에서 분석된 지출비목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특히 가공식품의 경우 주부가 전문직/사무직에 종사하는 가계의 지출이 비맞벌이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공식품의 경우 가사노동의 시장대체적 차원에서 구매되기도 하겠으나, 맞벌이가계의 주부들이 외식지출이 많거나 또는 식사준비규모 자체를 줄임으로써 가공식품에 대한 지출이 적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은 맞벌이가계와 비맞벌이가계 간의 식사준비시간에 대한 비교 연구, 또는 식비 내에서의 식료품비, 외식비, 가공식품지출비간의 상관관계 분석 연구를 통해 답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가사노동의 유사시장대체지출로 다른 보충교육비에 관한 분석결과는 주부의 직업유형이 무엇인건 상관없이 취업주부가계의 이 지출비목의 사용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충교육비의 일부가 자녀의 보육의 형태로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기혼여성의 취업장려정책과 관련하여 소득세산정시의 소득공제부분이라던가 주부취업비용으로 써의 자녀보육료산정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인 것으로 사료된다.

다섯째, 우리나라의 가족관계에 근거할 때 일부 맞벌이가계의 경우 자녀탁아를 조모나 친지 등에게 맡기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이런 경우 보육자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실질보육료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해당지출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이런 맞벌이가계의 경우 보육료가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보육료 부분을 산정할 때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여섯째,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가사노동에 대한 시장대체지출 규모는 맞벌이여부나 주부직업유형 외 가계소득, 주부연령, 주부학력 등 다양한 가구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식, 가공식품 업체 등 관련 산업에서 마케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를 통해 취업주부가계는 가사노동을 위한 시간절약의 수단으로 시장대체지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시간경과에 따른 연구결과의 추세나 또는 가사노동에 대한 시장대체지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전문/사무직 주부가 늘어가는 추세로 볼 때 이들 지출비목에 대한 지출규모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나라에는 주부의 취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반면 가사노동에 대한 남편 또는 여타가구원의 참여속도는 완만한 것으로 볼 때 관련연구는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부취업과 함께 부족한 가사노동에의 시간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는지, 가사노동의 시장대체의 형태인지, 가사노동의 절대규모를 줄이는지, 아니면 제3의 여성에 의해 가사노동이 해결되는지 등 다양한 측면의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취업주부가계로 하여금 가사노동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여성취업과 관련한 정부정책 수립시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접수일 : 2002년 7월 15일

심사완료일 : 2002년 9월 10일

### 【참고문헌】

구현정(1999). 취업·비취업주부의 가계기여도 비교연구: 주관적, 객관적 가계기여도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구혜령·이기영(2001). 식생활과 의생활영역의 가사노동 상품대체와 그 영향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2), 111-127.

- 문숙재 · 김혜연(1995). 취업주부의 취업관련 지출과 가정경제에 대한 기여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4), 39-53.
- 문숙재 · 정지영(1991). 가사노동 서비스 영역의 사회화와 그 만족 수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9(3), 131-152.
- 문숙재 · 정지영(1997).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주부의 가사노동시간과 가계의 시간절약 지출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3), 59-72.
- 양세정(1997). 주부취업과 가계경제구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165-182.
- 양세정(1998). 주부취업과 가계소비지출. *대한가정학회지*, 36(1), 169-186.
- 양세정 · 주인숙(1998). 취업주부의 경제적 기여도 측정 및 맞벌이 요인. 통계청 1996 가구소비실태조사 종합분석사업보고서 5-5.
- 이기영 · 구혜령(1997). 가사노동 사회화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3), 33-43.
- 이미선 · 이정우(1997). 전문 · 사무직 취업주부의 가사노동 관리방안 및 가사노동 관리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5(2), 201-216.
- 정순희(1993). 미국내 가사노동의 시장대체실태와 관련변수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1), 22-34.
- 제미경 · 박명희(1993). 도시주부의 시간절약서비스 지출과 관련 요인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3), 1-12.
- 조유현(1994). Factors affecting household expenditures for services. *대한가정학회지*, 32(3), 45-62.
- 통계청(2001). 경제활동인구조사.
- 황의록 · 신영철(1993). 시간/노동절약 수단의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4(1), 109-128.
- Becker, G.(1965). A theory of the allocation of time. *The Economic Journal*, 76, 493-517.
- Bellante, D. & Foster, A.C.(1984). Working wives and expenditure on service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1, 700-707.
- Democratic Study Group(1990). They didn't come to the party. *U.S. House of Representatives Special Report No.101-32*.
- Foster, A.C.(1988). Wife's employment and family expenditure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2, 15-27.
- Goebel, K. & Hennon, C.B.(1982).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the relationship among wife's employment status, stage in the family life cycle, meal preparation time, and expenditures for meals way from home.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6, 63-78.
- Huh, E.(2002). Impact of wife's employment and occupation on service expenditures. *Journal of ARAHE*, 9, 72-77.
- Lippert, A. & Love, D.O.(1986). Family expenditures for food away from home and prepared foods. *Family Economics Review*, 3, 9-14.
- Nickols, S. Y. & Fox, K. D.(1983). Buying time and saving time: strategies for managing household produc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0, 197-208.
- Ortiz, B., MacDonald, M., Ackerman, N. & Goebel, K.(1981). The effect of homemakers' employment on meal preparation time, meals at home, and meals away from hom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9(3), 200-206.
- Pleck, J. H.(1985). *Working wives/working husbands*. Sage Publications.
- Redman, B. J.(1980). The impact of women's time allocation on expenditure for meals away from home and prepared foods.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62, 234-237.
- Rubin, R. S., Riney, B. J. & Molina, D. J.(1990). Expenditure pattern differentials between one-earner and dual-earner households: 1972-1973 and 1984.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7(1), 43-52.
- Strober, M. H. & Weinberg, C. B.(1980). Strategies used by working and nonworking wives to reduce time pressur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6, 338-348.
- Yang, S. J. & Magrabi, F. M.(1989). Expenditures for services, wife's employment, and other household characteristic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8(2), 133-147.